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강좌' 시리즈의 31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여성의 가정·경제·사회 영역에서의 일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생활과 역할, 의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uniedu.go.kr/ebook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Contents

제1장 북한의 여성정책

1

1. 여성에 대한 인식
2. 양성평등정책

2

7

제2장 북한 여성의 가정생활

19

1. 가족제도
2. 결혼과 이혼
3. 임신과 출산

21

2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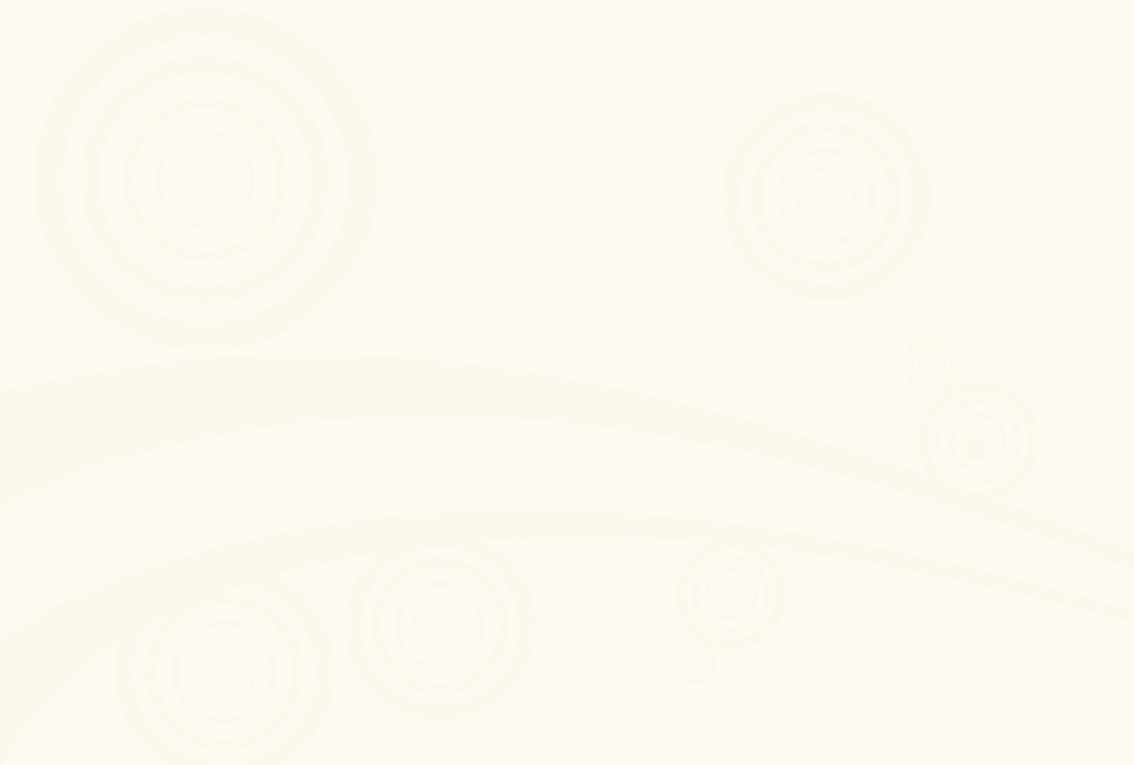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제3장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33
1. 여성의 경제 참여	34
2.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정책	41
제4장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	45
1. 교육	46
2. 정치	51
3. 대중조직활동	55
제5장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생활 변화	63
1. 생활과 생존 방식의 변화	68
2. 삶과 의식의 변화	86
3. 역할과 위상의 변화	93
제6장 맺음말	105
참고문헌	111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01

북한의 여성정책

- 01. 여성에 대한 인식
- 02. 양성평등정책

C H A P T E R

01

북한의 여성정책

01.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하는 문제이다. 시각에 따라 여성의 위상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제도였다.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북한의 여성 인식은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따른 여성의 역할 (1945-1972년)

북한은 정권수립과 함께, 반제반봉건주의를 지향하는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토지개혁과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형성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원칙에 의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도로 도-군-면 인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가 집행하였으며, 농경지 200만보 중 100만보를 무상몰수하여 그 중 90만보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하고 나머지는 국유화하였다. 이러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았으며, 가부장제에서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이 소유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여성은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은 「남녀평등법」을 통해 정치·사회적 권리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남녀평등법」을 토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여성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북한은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을 결성하여 여성의 조직화를 꾀하였다. 이미 여맹이 탄생하기 전, 김일성은 여성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단결된 힘으로 조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당시 사회적 해방을 위한 과업에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맹은 사회현실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여성이 새롭게 건설하는 사회에서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통로이자 당국의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른 한편, 「노동법」을 제정하여 여성에게 사회적 노동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였다. 이는 곧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여성역할의 정형화와 가부장 문화의 확산 (1972-1989년)

북한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확립과 계획경제의 성과 부진 등 주요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다. 1972년 북한은 헌법상 주석제를 도입하고 1974년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여, 김일성 체제의 확립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권력의 세습화 및 정당화 과정에서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1976년 김정숙을 ‘혁명의 어머니’

로 지칭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 이후 김정숙의 이상화와 찬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김정숙의 출생지인 신파읍에 동상과 신파혁명사적관을 건립하여 여성들의 혁명사적 답사코스로 지정하였다. 김정숙 개인에 대한 찬양은 주로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투사의 품모, 여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자 인민들을 항상 돌보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즉, 당시 북한 여성은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하여 여성이 지녀야 할 덕목을 김정숙을 모델로 학습하여 북한이 지향하는 여성형을 창출하는 한편, 김정일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교육받았다.

북한은 여성을 노동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자,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사회는 수령, 당, 대중으로 구성된 생명체이며, 각각의 관계는 불가분의 상태로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동운명체로 상정된다.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유지되듯이 사회나 국가와 같은 대가정에서도 생명을 준 수령이 가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가부장제로의 회귀는 가정에 대한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 의무 이행을 강요받는 여성 (1990년 이후)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 혹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북한은 체제 보존이라는 국가 존망의 기로에 직면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체제 내 결속에 집중하였다.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 김일성 지도하의 북한임을 가시화하는 한편, 김정일을 중심으로 체제 내 동요를 방지하고 단결을 호소하는 등 통치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여성에 대한 사회주의적 권리 보장보다는 여성이 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였다. 국가 스스로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보은을 강요받았다. 북한에서 여성의 가치는 최고 지도자에게 충실하고 가정에서 효녀가 될 때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경제부양의 책임은 가장에게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가장의 역할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족생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커졌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계획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장사가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에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 대신 여성이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형편이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북한 여성들 스스로도 결혼을 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02. 양성평등정책

북한의 양성평등정책은 출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하여 여성도 가정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고 경제적 독립을 얻음으로써 인격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본 이념 아래 법적·제도적 개혁과 함께 “여성의 가정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성들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일과 가사일을 함께 하도록 중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양성평등정책이 변화되어온 시기 별로 1950년대, 19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여성으로의 개조를 위한 여성 관련 법·제도 준비를 이루었던 1950년대의 시기이다.

북한은 해방 후 1945년 10월 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와 봉건적 관습을 제거하고 전 여성의 사상 개조와 경제력 동원을 위해 이를 담당할 여성조직으로 1945년 11월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을 창립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로서 각종 여성 정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복지의 내용을 보장한 법률로는 1946년에 제정한 헌법적 성격을 지닌 「20개조 정강」(1946.3),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6),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률」(1946.7)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20개조 정강」은 “남녀평등권과 8시간 노동의 보장 그리고 교육제도의 개혁” 등 광범위한 여성정책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권리”를 보장하였으며,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률」은 처음으로 노동의 기본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8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휴식, 휴가”와 “여성노동자의 보호”와 “사회보험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여맹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와 함께 1946년 12월부터 시작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등 일반 대중여성의 노동력 동원에도 점차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후 1947년 6월 「탁아소 규칙」을 제정하여 생후 30일 이후 만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 상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이미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온 것처럼 여성의 사회참여 없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여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던 시대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산주의 여성으로의 확립을 위한 여성정책을 확충하려고 노력하였던 1960년대의 시대이다.

북한은 1957년부터 5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을 경제발전에 투입하고, 공산주의 여성으로의 확립을 위한 사상혁명을 강조한다. 여성의 사상혁명의 강조는 여맹을 통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②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 ③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도 전개해 나갔는데, 특히 7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1957년부터 “복구 돌격대 운동”, “민청순회 우승기 쟁취 운동”, “천리마 운동”, “청산리 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 많은 노력경쟁 운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1968년부터는 “가정의 혁명화”라는 구호 아래 ‘밥공장’, ‘반찬공장’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성분 재분류 사업인 주민등록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성분을 51계층으로 구분하였고, 이때부터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강조하며 여성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여성복지 관련 법률로는 「모성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1966), 내각 결정 「탁아소·유치원을 전국 가적·전인민적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8)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여성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아동복지 서비스와 무상 치료제 확대로 공산주의 여성으로의 확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확충해나가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70~1980년대의 주체형 공산주의 여성으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였던 시기이다.

1972년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실현되었음을 사회주의 헌법에 밝히고 보다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여맹은 직장·지역별 인민반 조직을 통해 ① 주체사상 교양, ② 강반석 따라 배우기, ③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집단주의 정신의 교양, ④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

를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게 한다.

이 당시 여성들이 동원되었던 노력경쟁 운동을 살펴 보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80년대 속도창조 운동’, ‘새로운 1990년대 속도창조 운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8년 여성 노동력 비율은 49%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여성복지 관련 주요 법률로는 「사회주의 헌법」(1972.12),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대하여」(1975.9),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사회주의 노동법」(1978.4), 「가족법」(1990.10)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회주의 헌법」이나 「사회주의 노동법」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노동보호나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대하여」는 “만 5세의 유치원 높은 반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령 전 아동에게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그 동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하여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체계화시킨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강화로 이미 사회주의가 실현되었음을 선포하고 여성들을 국가 경제력의 강화에 참여토록 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여성정책을 공고히 구축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넷째,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낸 시기이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의 경제난은 오늘날에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1994), 잇따른 자연재해,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누적 등 대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이후, 중앙의 통제는 약화되고 인민들의 비공식경제가 확산되는 등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였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임금을 평균 18~25배 정도 직종별로 차등 인상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중화학공

업,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경공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은 중화학공업 우대정책과 모성보호라는 명목으로 경공업과 서비스업 등에 주로 여성들을 배치하였으며, 이 분야의 평균임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 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여성을 열등한 직업에 배치하고,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추가 혜택 없는 가내작업반이나 무보수 지원반에 여성을 동원하면서 여성의 노동조건을 교묘하게 남성보다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임금 인상 수준이 물가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사범의 여성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북한은 2003년 3월 종합시장을 도입하여 개인판매대를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기관이 운영했던 유통시장에 개인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이후부터 개인 경제활동 및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실제

로 2006년 12월에는 만 17세 이상 성인 남성의 장마당 장사 금지, 2007년 10월에는 여성들의 장마당 장사 연령·품목 등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장사가 금지된 40세 미만 여성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매일 인민위원회에 신소를 올리고 있으며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직업을 배치해 달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단속이 강화되어 ‘메뚜기 장사’가 더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강요하는 등 심한 복장규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양성평등정책은 1980년대 이후 초기 사회주의적 양성평등정책에서 후퇴하여 전통적 가치관과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부장적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역할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제정된 「가족법」의 내용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유산을 답습하고 어머니의 일차적 역할로 자녀 양육과 교양을 강조하는 등 양성평등이념에서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양성평등정책에서는 북한 여성의 공식적인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적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도에서 보장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실제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서 제시하였던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후퇴는 경제위기의 영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1980년대부터 북한 경제 성장은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계획경제의 붕괴와 국가배급제가 마비되면서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적 경제 부문이 활성화되었다. 일반 주민의 생활과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는 가운데, 북한 여성은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전적인 책임을 가지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인식도 다시금 팽배해졌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사회적 지위 속에 사회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의 전담자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에서는 정책적인 목표로서의 양성평등정책과 실제 북한 여성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적 요소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02

북한 여성의 가정생활

- 01. 가족제도
- 02. 결혼과 이혼
- 03. 임신과 출산

북한 여성의 가정생활

북한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가족은 국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가정의 혁명화는 공산주의 건설의 기반이 된다. 결혼과 가족 제도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남한에서 결혼과 가족이 애정에 기초한다면, 북한에서는 여기에 ‘혁명적 동지애’를 추가하도록 요구한다.

01. 가족제도

북한의 가족제도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시된다. 「사회주의 헌법」과 「가족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족을 공고히 하고 결혼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며 사회주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층단위인 가정이 개인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이익과 결합되는 것이다.

북한의 「가족법」은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부양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0년에 채택된 이후, 1993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족법」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여성추종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을 포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후견 제도를 두며(제4조), 부부가 서로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제19조). 한편,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고 「가족법」의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다(제7조).

이러한 「가족법」은 제정 당시의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담보하였던 공민 부양과 복지가 1980년대 이후 가족 내부로 이전하면서, 「가족법」에도 부부간, 부모-자식,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부양능력이 없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북한에서는 호적제도를 오래 전에 폐지하고, 1946년 9월부터 공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였고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교육 및 시부모 봉양을 전담하는 등 가중된 부담을 떠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평등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이 추진되면서도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가사분담에서 전혀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02. 결혼과 이혼

북한의 혼인가능연령은 남한과 비슷하다. 남성은 남북한 모두 18세, 여성은 북한 17세, 남한 18세로 북한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이 남자보다 1세 낮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1976년 7월 정무원의 결정으로 남성 30세, 여성 28세인 만혼이 장려되었다. 또한 「가족법」에서, 혼인연령에 달한 결혼 당사자는 자유 의지에 따라 결혼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남성은 30~31세, 여성은 28~29세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난에 따른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 남성은 25~26세, 여성은 23세를 결혼적령기로 생각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북한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이 늦춰지거나 결혼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가족법」 제11조에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법률혼을 강조한다. 한편 경제난으로 북한 여성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군도



북한의 결혼식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당 간부나 군관, 기술자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쉬운 요리사, 원자재와 생산물을 관리하는 자, 외화를 다루는 무역회사원, 외국을 출입할 수 있는 외교관이나 유학생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상적인 배우자 여성의 직업 역시 식당 종업원이나 상품 판매원 등 서비스 직종이나 물건을 사고파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특히 농촌 남성의 경우, 종래 배우자로 기피하는 대상이었으나 식량 사정의 악화로 인해 점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결혼식

결혼형태로는 1980년대 이후 점차 연애결혼이 증가하면서 중매와 연애결혼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되었으며,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중매결혼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옴모는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대체로 여성은 쌍꺼풀이 있는 둥근 얼굴을 소유한 사람이, 남성은 키가 크고 튼튼한 사람인 경우, 인기가 많다.

결혼식은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택하여 신랑 혹은 신부의 집, 또는 공공장소나 직장 회의실에서 열린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평소 입던 신사복을, 신부는 연분홍색 한복을 주로 입으며, 식수는 주례사와 예물교환을 하고 합환주를 나누어 마신 후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구성된다.

피로연은 신랑과 신부 측이 각각 진행하며, 휴가는 3~4일 정도로 금강산이나 묘향산, 주을온천 등 외지를 다녀오거나 인근 명승지 혹은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는 정도에 그치기도 한다.

결혼비용은 양가가 부담하는데, 결혼 후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상당기간 별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부의 혼수는 이불을 비롯하여, 재봉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다.

출처 김원홍 외(2003). 『(개정판)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한편, 북한은 축첩과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하고 법으로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으나, 경제악화로 가정 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느슨해지고 혼인관계도 약화되었다. 북한은 초기에 합의이혼제를 실시하였으나, 1956년에 합의

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을 인정하여 이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법」에서 재판이혼의 사유가 까다롭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한 증거가 있거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이혼소송은 기각된다. 「가족법」에 따라, 이혼할 때에 3세 미만의 자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에게 우선적 양육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를 월수입의 10~30%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이혼제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년 이상 소요되었던 이혼소송기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이혼을 허락하되, 이혼을 제기한 쪽에 벌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이혼승인거부, 이혼 시 강제추방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이혼을 억제하고 있다. 과거 북한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북한 여성의 자의식이 형성되고 폭력에 대한 대항능력이 생기면서 맞대응하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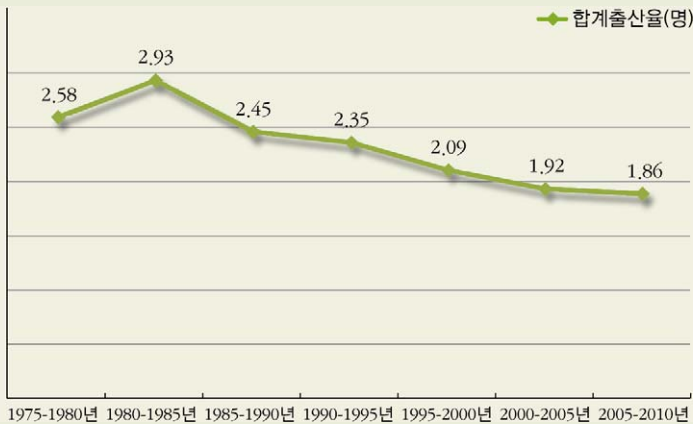
03. 임신과 출산

북한은 「가족법」에서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고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에 따라 여성의 출산기능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운영하고, 임신부의 건강진단은 매달 1회, 출산이 가까워지면 15일 혹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무료 진료를 받고 산원에서 무료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직장여성을 위해 1946년에는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출산휴가 제도를 마련하였고, 1986년 이후에는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총 150일의 출산유급휴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기간 동안은 직장에 출근할 때와 동일한 식량 배급과 월급을 지급하며, 임신부를 시간외 노동 및 야간노동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에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의 1.70%, 1980년대의 1.80%, 1990년대 이후에는 1.0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출산율 역시 1980년대 초반 2.93%에서 1998년

1.96%로 감소하였다가,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08년에 2.02%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체제 수립 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군 병력 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인구증가 정책을 취했으나, 1970년대 후반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까지 만혼정책과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199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극심한 경제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

북한 출산율의 변화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낳는 자녀의 수
출처 통계청 (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와 영아사망률의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370명이며,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47명이다. 또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11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으로 세계적으로 77번째로 높은 상태이다. 북한 주민 중에서도 여성의 건강과 면역력이 나빠지면서 신생아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06년 ‘북한 어린이와 여성 현황분석’에 따르면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임여성의 32.4%가 영양실조이고, 21.1%가 45kg이하의 저체중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북한 여성의 영양부족 현상으로 인해, 출산력이 떨어지고 영양부족 상태에서 임신하여 유산 및 사산이 잦음을 보여준다.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영아사망률 증가와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37년만인 1998년 9월 28~29일간 제2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하고 어머니와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회에서 ‘아이

를 많이 낳을 것'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어머니의 역할과 '다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 및 세대 변화에 따른 젊은 여성들의 다산기피와 영아사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쌍둥이를 출산한 북한여성



평양산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세쌍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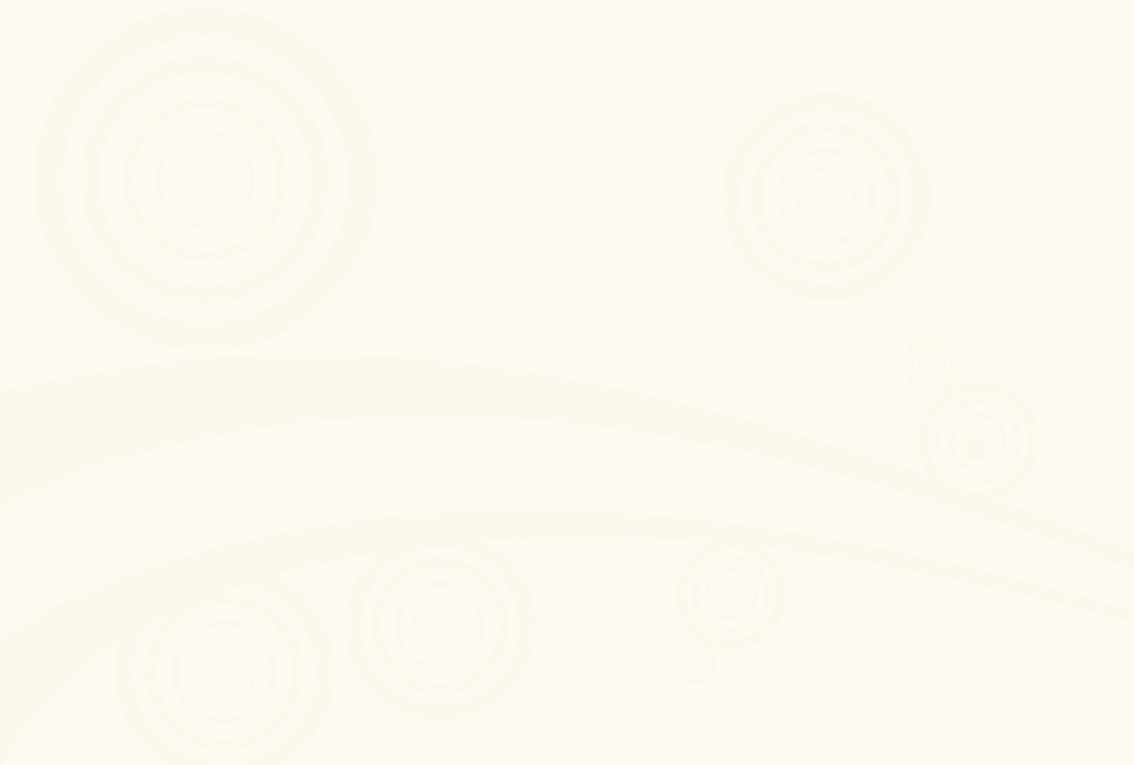
특히 쌍둥이의 경우, 특별히 우대하여 출산 후 '국가적 경사'로 인정하여 옷감이나 영양식품, 금반지 등 특별 배려품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함경남도 함흥시는 2007년부터 한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 전체에게 6개월까지 배급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

안북도 신의주시의 각 학교에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세대에는 사회과제(세외부담) 일체를 면제하기도 하였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03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 01. 여성의 경제 참여
- 02.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정책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01. 여성의 경제 참여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노동권과 고용평등권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사회주의 노동법」에 법제화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에는 남녀동권의 원칙 아래 여성의 사회참여보장과 사회진출조건의 마련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구체화되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주체로서 노동생활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은 1956년 20%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1년 53.7%, 그리고 현재까지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단지 유희노동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커다란 정치사업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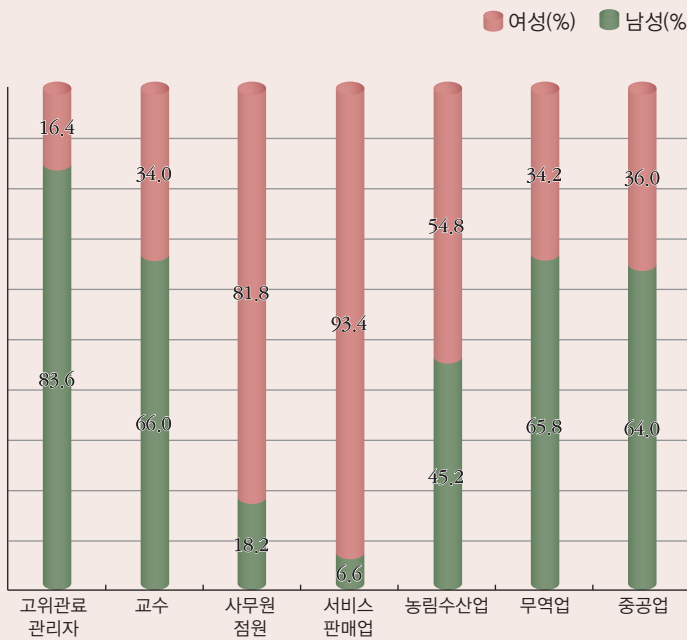
북한 여성노동자의 일상생활

북한 여성노동자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대개는 집이 직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규정에는 13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8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6시간만 노동에 종사한다. 줄어든 2시간은 대부분 집안일에 투입된다. 여성의 경우는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작업을 마치면 30분씩 작업반별로 작업총화를 실시한다. 주부들은 출근 전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퇴근 후에는 데려와야 한다. 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본다. 퇴근한 여성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남성이 취사를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을은 각 30세대로 구성된 인민반 단위로 통제된다. 인민반장이 새벽 4~5시에 마당쓸기나 큰길정리를 요구하면, 이를 지켜야 한다. 공동수도,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 지역은 순번제로 청소한다.

출처 송정모 (2001). “북한 여성노동자들의 삶”. 『노동사회』, 2001년 10월호, 130쪽.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으로 수행한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인구 중 47.8%가 여성이었고, 가사노동을 포함할 경우 노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51.4%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 부문에

북한의 직업에 따른 성별 비율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Table 38'의 내용을 재정리.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관료나 관리자의 남성 비율은 83.6%인 반면, 서비스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3.4%가 여성이다. 또한 농림수산업 노동자 중 54.8%가 여성이지만, 중공업 부문의 노동자 중 64.0%가 남성이다.

이처럼 북한은 중화학공업 우대정책과 모성보호의 명목 아래 경공업과 서비스업 등에 주로 여성을 배치하는 직종분리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분야의 평균임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공업은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70%에 이르고, 임금은 전체산업 평균의 86%로써 중공업노동자의 69.7%에 불과하다.¹ 서비스업은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상업과 급양에 치중되어 있으며, 임금은 전체 산업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 간 동일임금 지급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종별 임금 격차와 기능별 차등 지급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차이가 구조적·성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 김원홍 외, 2009, 『북한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제2부 교육·여성·보건분야』, 통일정책연구협의회, 157~158쪽

1970년대까지 ‘남녀노력 교체사업’이 실시되어, 여성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력을 보다 어렵고 힘든 분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여성 노동력을 재배치하였다. 북한에서는 노동력은 성별, 나이, 체질, 기술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혈하고 쉬운 일’은 여성들과 체질이 약한 사람들이, ‘힘든 일’은 건장한 청장년들이, 기술이 필요한 일은 기술과 기능을 소유한 일꾼들이 수행하도록 배치한다. 북한의 노동행정이론 문헌에 따르면, 여성은 체력이 남성에 비해 약하고 출산과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성격과 취미에서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섬세하고 알뜰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라 노동력을 다르게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여성 노동자는 숙련을 요하지 않는 보조적인 인력으로 기능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북한 여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추가 혜택이 없는 가내작업반이나 무보수 지원반에 동원되면서, 여성의 노동조건이 남성보다 열악한 수준에 놓여있다. 전체적으로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현

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2005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검토한 후,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특히 교육과 취업, 기타 생활영역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북한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 기대와 기대보다 적은 혜택이 여성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다중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경제활동 중단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대체로 직장을 그만 두는 편이라고 알려졌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서, 직장에서 기혼여성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남편도 여성이 살림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주로 나타난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 미혼여성들은 대

부분 취업을 하였으나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30-40%에 불과하였다. 특히 전문기술직과 체력노동업종을 제외한 상업과 복무업, 일반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 실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식량배급 정책도 기혼여성의 실직에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된다. 미혼여성은 직업이 없으면 양식배급관계가 취소되지만, 기혼여성은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도 양식관계를 남편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직업을 남편의 거주지 내에서 얻도록 규정한 점도 기혼



평양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02.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정책

북한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을 조직하고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보육, 교양하는 ‘자녀 양육의 사회화’ 정책을 실시한다. 탁아소 및 유치원의 건립과 사회적·집단적 보육교양체제는 해방 후부터 꾸준히 추진되었다. 보육정책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혁명의 미래 주인공으로 잘 키우는 것과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북한의 보육이념은 어린이를 주체혁명의 혁명적 인간으로 키운다는 주체사상의 보육이념,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혁명적 인재로 양성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 보육이념, 여성을 육아에서 해방시킨다는 보육이념,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운다는 조기교육제도의 보육이념 등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북한은 직장여성을 위해 전국 모든 지역과 중대형공장 및 기업소, 협동농장 작업반별로 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탁아소를 설치하였다. 1961년에는 주 탁아소

를, 1965년에는 월 탁아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설하여 1976년경에는 6만여 개 시설에 350여만 명을 수용하여 대부분의 어린이를 담당하였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의 어머니는 오전-오후 각 2회 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 어머니는 오전-오후 각 1회 각 30분씩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생후 1년 반의 유아까지는 하루 한 번씩 어머니가 방문할 수 있다.

탁아소의 종류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곳이 다르다. 중앙의 탁아소는 중앙예산으로, 시-도-군의 탁아소는 지방예산으로, 농업부문의 협동농장 탁아소는 공동소비자금으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탁아소는 어린이의 생후 개월 수에 따라 하나의 방에 2명의 보육원을 두고, 15-20명을 수용하여 모유, 이유식, 밥 먹이기, 용변 가리기를 가르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위기는 탁아소 운영의 불안정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난 이후 탁아소가 문을 닫으면서, 육아의 부담을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식량난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면, 어머니들은 다른 가족에게 음식을 양보하여 건강

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어머니에게는 공산주의적 어머니상, 즉 노동 전사이자 알뜰한 주부이며 자애로운 어머니상이라는 이중적 역할이 부과된다. 결국 노동현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혁명성을 발휘해야 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세포 단위인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도록 기여해야 한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04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

- 01. 교 육
- 02. 정 치
- 03. 대중조직활동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

1. 교육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사회주의 건설,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법」에 따르면, 북한 교육의 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는 가정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가정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자녀 교양의 첫째가는 담당자는 어머니’로, 자녀를 ‘강성대국 건설의 역군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일을 여성의 ‘본분’

으로 자주 강조한다.

북한 인재의 구체적인 인간형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북한은 1972년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의 실시 이후 중등일반교육을 받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았다. 여성들의 정규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지역배치를 합리화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인텔리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직장 여성들이 일하면서 배워 전문성을 키우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박사·준박사 등의 여성학자 양성, 기술교육을 통한 산업 및 농업 부문 근로여성들의 전문성 제고 등에 힘쓴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여성의 교육을 지원·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일정 정도 여성의 노동참여와 지위, 여성노동력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북한은 성별에 따라 학급을 분리하는 남녀 분반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여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운영한다. 사회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만큼, 학교교육부터 남녀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와 품성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남학교와 여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양성불평등의 소산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에서 성 역할 분리가 해체되었다거나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에서는 성별에 따른 전통적 역할을 교육하는 과목을 분리하여 가르친다. 중학교의 여학생은 옷 만들기, 요리, 육아, 간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학생 실습교육’을 남학생은 ‘공장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사회적 노동에서도 가사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북한 여성의 역할모델

북한에서 여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역할모델로 제시되는 인물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이들이 『조선녀성』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이상적 여성상으로 그려진 것은 1970년대 말 이후이다.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은 항일무장투쟁 시기 여성 혁명조직인 반일 부녀회를 조직한 ‘여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을 길러낸 ‘어머니’, ‘시부모에게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역시 혁명투사인 여전사, 혁명가의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지도자인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김정숙은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강반석과 김정숙이 보여주는 여성상은 북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바를 잘 드러낸다. 여성은 공산주의 수립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지위는 남존여비의 유교적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군대에서 제대한 남학생에게는 나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동지’라고 칭하면서 존댓말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학교 청소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노력봉사도 대부분 여학생의 몫이다. 남녀 간 학교교

육 접근 가능성도 차이가 나타난다. 11년간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여성도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 진학이나 유학의 기회가 여학생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고 보기 어렵다. 각 대학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평균 30% 이하로 한정시켜 여성들의 대학 진학을 제한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이 아주 적어서 대졸 여성이 엘리트로 대접받거나, 제대 군인이 대학에 가기 쉽거나, 실력보다는 당성을 우선하여 대학신입생을 선발하는 풍조에서 남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길이 더 개방되어 있으며 여학생은 유학생 선발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자주 나오고 있다.

02. 정 치

북한은 정권 창립 이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규정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헌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에서도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사회로의 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20%를 여성의석으로 보장하는 할당제를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북한의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북한의 통치구조는 형식적으로 3권 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령과 당이 중심이 된 지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모든 분야에서 주체

사상을 유일지도 이념으로 내세우고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강조한 이후,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통해 수령 지배체제로 전환한 상태이다. 북한의 통치구조는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조선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정치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이다. 1972년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 대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21%를 넘었으나, 1998년 제10기와 2003년 제11기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1%, 2009년 4월에 출범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5.6%로 감소하였다. 상임위원회 여성비율은 제8~9기에 20%, 제10기에는 11.8%였으나, 제12기에는 다시금 20%가 되었다. 지방인민회의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25%를 유지한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중 여성비율이 20% 내외라는 것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지만, 전문적인 정치인보다는 노력영웅이나 판매원 등 정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중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나 상설회의에서 여성의 비율은 최고인민회의의 여성대의원의 비율보다 저조했으나, 최근 구성된 제12기 상임위원회에서 다시금 높아졌다. 제1기 3%, 제2기와 제4기 6%, 제9기 13%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11% 정도에 그쳤지만, 제8기와 제12기 상임위원회에서 1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성위원으로 20%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위상은 명목상의 권한을 가지는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여성

인민회의의 여성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 대의원의 역할은 남녀를 불문하고 국가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토론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예산 집행과 예산안 구성이 잘 되었다는 칭송 발언이 대부분이다. 또한 남북통일이나 인민경제 발전,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의무교육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있으나, 당의 기본적 정책 테두리 내에서 토론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여성문제를 발굴하거나 여성의제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노동당에서 당의 방침에 따라 성별, 지역, 직종, 계층 분포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안배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여성 비율에 따라 당선된다. 그러므로 1970년대 이후 20%라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3. 대중조직활동

북한은 대중의 조직화를 사회주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중조직은 근로단체이다. 근로단체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4개 단체로 연령별, 직업별, 성별로 조직되어 있다. 근로단체는 만 14세 이상의 북한 주민 중 노동당에 속하지 않은 모든 주민을 포괄한다. 북한의 당원 비율이 전체의 약 10%이며, 따라서 북한주민 대부분이 근로단체의 구성원이며 근로단체를 통해 당의 정책을 전달받고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당은 이러한 대중조직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통적으로 사상교양조직,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벨트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은 북한 최대의 여성조직이다. 공식적으로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한 여맹은 1951년 1월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북한 여성은 모두 여맹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1983년 제5차 여맹중

양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른 근로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으로 가입대상을 국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현재 여맹의 주요 구성원은 약 30대 전후부터 60대까지의 가정주부와 노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들의 모습

북한의 대중조직

대중 조직	설립 연도	조직 규모	가입 대상	주요활동
조선민주 여성동맹 (여맹)	1945년 11월 18일	약 20 만명	여성: 31- 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립 -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 공산주의 교양 강화 - 천리마 작업반 운동 - 후대들에 대한 교양 강화 - 인민군 지원활동 강화
조선직업 총동맹 (직총)	1948년 11월 30일	약 160 만명	노동자, 사무원: 31- 65세 (여: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기술자, 공무원 공산주의 교양 - 맹원의 계급 교양 - 기술, 문화, 교양 사업 실시 - 생산과제 수행에 노동자들의 조직 동원 - 노동보호사업의 조직 집행 -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지도
김일성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사로청)	1946년 1월 17일	약 500 만명	학생, 근로자, 군인: 14- 3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자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의 임무 수행 -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 당의 사상체계로 무장 - 공산주의 도덕 교양 강화 - 천리마 작업반 운동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농근맹)	1946년 1월 31일	약 130 만명	협동 농장원: 31- 65세 (여: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의 노동계급화 - 농촌 3대혁명 추진 - 사회주의 농촌업무 수행 -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 강화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북한이해 2011』, 274쪽의 내용을 보완.

여맹은 1946년 창립 당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문맹퇴치에 힘쓰는 등 여성운동의 기초적 과제를 담당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후 1961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여맹의 과업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여성의 지위향상보다는 당의 주요 과업을 관철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한쪽 수레바퀴’의 역할에 주력하도록 강조하였다. 일례로 2005년 10월 개최된 여맹중앙위원회 제44차 전원회의 내용에서, 노동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여맹 사업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에 기초한 사상교양에 충실해야 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상응하여 여맹을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여성혁명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여맹원들을 선군혁명동지로 키워내며,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군사력 강화사업에 최우선적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주로 논의되었다. 제43차 전원회의에서도 주로 비슷한 내용이 제기되었는데, 여성 관련 의제로 “우리의 고상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견결히 지키며 거리와 마을, 가정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자녀들을 능력있는 강성대국 건설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는데서 여맹원들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다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여맹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로단체라는 특성상 당의 외곽단체로 북한체제의 권력구조 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여성문제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 이외에는 당 내에서 핵심의제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맹 활동은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여맹은 북한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에도 당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여성을 통제, 관리,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여맹의 존재는 계속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여맹의 활동은 당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여맹의 성격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과 여성의 권익보호,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여맹은 당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을 수호하는 방향에 머물러 있다. 결국 여맹은 창립 초기를 제외하고, 여성들이 노동당의 사업을 보다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담당할 따름이며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 노력이나 정치적 영

향력 행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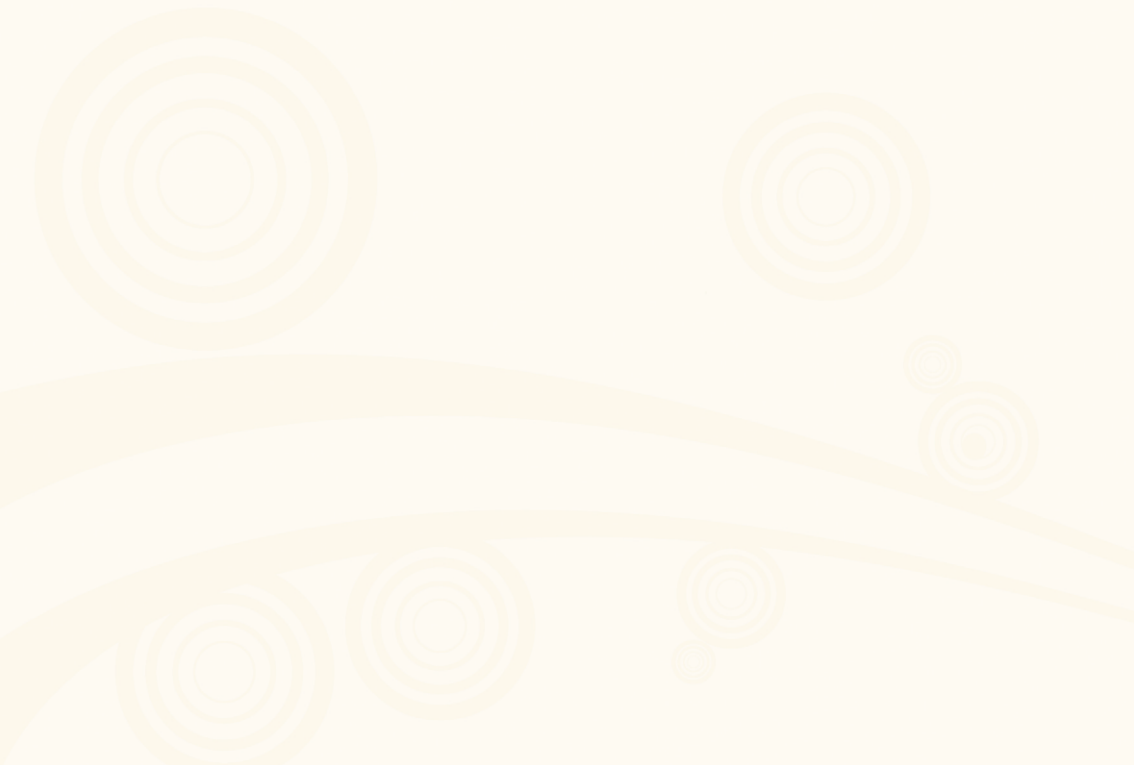
기 간	특 징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성 조직화와 동원 (1945-196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조직화한 시기 - 문맹퇴치사업과 선전, 교양,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 - 여성들의 생산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 - '어머니학교'를 확대, 재정비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여성과 가정 의 혁명화 (1965-198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 및 가정의 혁명화를 핵심 목표이자 주요 과업으로 제시 - 김일성 주체사상 교양, 강반석 따라 배우기,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과 집단주의 정신 교양, 어머니학교의 운영 - '물질적 요새'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있다'는 당 내 평가가 나옴
김정일 체제로의 조직 전환 (1983-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맹 가입기준 변경: 만 18세 이상 모든 여성에서 다른 근로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만 가입,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여맹원은 가정주부와 여성노인으로 구성되었고 여맹원 수는 감소함 -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성을 동원, 관리하는 여맹의 필요성이 커짐

기 간	특 징
여맹의 관료화와 선군정치 실현을 위한 총대가정과 모성영웅 (199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가정' 과 '모성영웅'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징 -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어머니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조하여, 혁명적 어머니의 역할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이들을 인민군대에 보내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것' 으로 규정 - 다른 대중조직에서 탈퇴한 여성의 가입으로 여맹원의 수가 증가함

출처 권수현 (2010). "북한조선민주여성동맹의 변화와 지속". 『사회과학연구』, 18(2): 17-29쪽의 내용을 재정리.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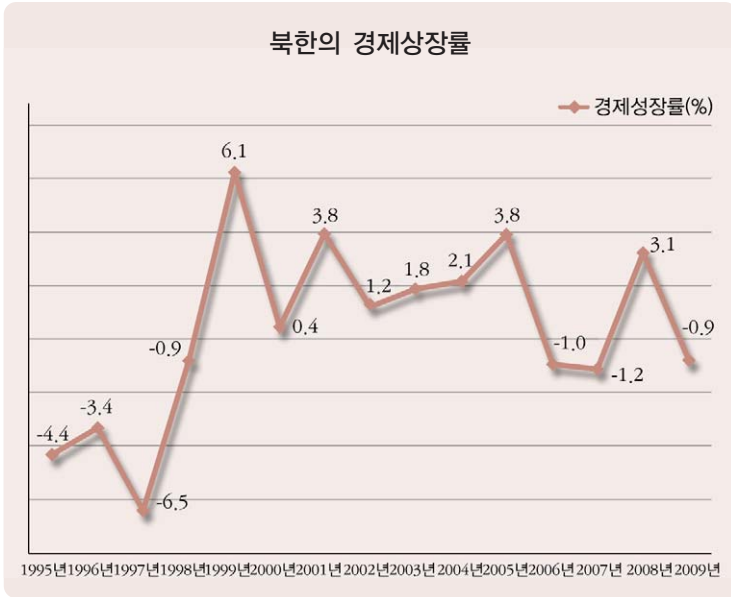
05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생활 변화

- 01. 생활과 생존 방식의 변화
- 02. 삶과 의식의 변화
- 03. 역할과 위상의 변화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생활 변화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이후 끊임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부족 등이 겹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도 크게 악화되어, 비공식 경제 부문의 확대와 사회질서의 혼란이 유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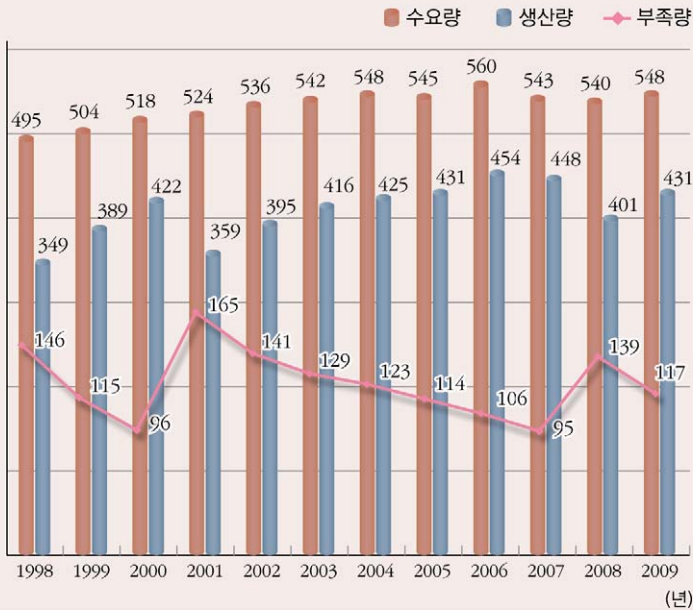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무엇보다도 198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식량난은 1995년의 수해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7년부터 이미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하여 배급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 감소,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의 급격한 저하,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500만톤 이하로 급락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였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굶주림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야생식량 구하기, 취약한 인구집단의 영양결핍 상태, 가축용 동물의 소비 증가, 가재도구와 가옥 매매, 다수 인구의 이동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만톤)



* 식량수요량은 감량배급기준(성인 1인당 546g)에 따른 추정치이며, 생산량은 전년도 곡물수확량임

출처 농촌진흥청(2010)

북한이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의지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사회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에게 체제부정 의식이 발생하고 북한체제의 이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주민 간의 정보유통망이 활성화되고 장마당 내에서 주민들의 상호접촉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 악화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 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성들은 ‘생계부양자’라는 과도한 역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뜻밖에 들이닥친 식량, 전기, 빨감 등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여성들에게 먼저 미쳐 왔으며”², “돌이켜보면 몇 년째 이 땅을 뒤덮었던 고난과 시련의 검은 구름은 이 나라 여성들의 가슴속에 먼저 그늘을 드리웠다”³는 노동신문의 글에서는 보다 열악해진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2 노동신문.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2000년 3월 8일.

3 노동신문. “조선녀성의 힘은 강하다”. 2000년 7월 30일.



01. 생활과 생존 방식의 변화

가. 가족부양자의 역할 강조

전통적으로 북한 여성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신적 노동자’ 이자 ‘혁명적 어머니’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북한은 체제 수립 이전부터 여성에게 가사전담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의 정치사회가 절대권력자를 중심으로 위계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혁명적 어머니’의 역할에서 절대권력자를 보위하는 혁명의 후비대 양성과 충성이 더욱 강조되고 건국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증진한다는 명목하에 여성의 노력동원이 합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발생하면서 전통적 주부라는 역할과 혁명가라는 역할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북한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 경제난의 영향은 공식적인 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극대화되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은 개개인의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었고, 북한 여성들은 생계 전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은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배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비교적 이동하기 쉬운 여성이 생계를 떠맡는 경우에 따른 것이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북한 여성

북한에서는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3대 기술혁명'의 하나로 제기했으나,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공업화는 물자부족과 전기부족으로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남녀동권

규정에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족 내에서도 여성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식수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층 아파트에서도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새로운 가사노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식량을 구하는 일도 가사노동의 일부로 간주되어 여성에게 할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양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였던 탁아소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 양육부담도 커졌다.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장사 등으로 생계를 책임졌다. 경제난 이전에도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분야였으며,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기혼여성은 감원대상의 최우선순위에 올라 정규직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후 북한 여성들은 장사 등의 부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장사의 종류와 규모는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여성이 직업을 바꾸는 일에 남편의 직위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남편을 둔 여성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장사를 하였지만, 일반 노동자급의 남편을 둔 여성들은 대부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장사를 하였다. 관리직의 남편을 둔 여성은 본래 부양의 책임을 맡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진사가 되었다가 외화벌이로 전업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 중에서 비교적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식량배급이 어려운 시기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으며, 김일성 사후 식량배급이 끊기게 되자 장사와 외화벌이로 전업을 하였다. 또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오전에 출근하였다가 오후에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장사에 전념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기고 북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이 시기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여성 중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⁴ 직장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여성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한다.

4 이미경(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1): 33-55쪽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은 주로 농업과 상업, 경공업, 소규모 공업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유통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난으로 인해 자원분배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필수품의 공급은 주로 수공업적 가내생산에 크게 의존하였고, 여기서 가내작업반은 중요했다.

가내작업반은 본래 도시와 노동자구의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들로 구성되어 공장에서 원료와 자재, 반제품 등을 가지고 일상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생산단위에서



가내작업반에서 작업중인 북한 여성

출발하였다. 노동수단은 개인이 소유한 간단한 도구들이었으며, 반원들이 개별 가정에서 일하거나 공동 장소에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노동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생산량에 따라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소의 정식 노동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여성은 각종 부업이나 가내작업반을 통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생산물과 재원을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투자하여 식량이나 일상생활의 재원을 마련한다. 공장이 불안정하게 가동되면서 국가는 생산의 정상화를 강조하였으며, 여성 노동자들은 국가동원 사업에 가장 우선되는 동원 대상으로 각종 가내작업반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생산하였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대가로, 생산자는 평균적으로 상품판매가의 70~80%를 가지고 국가는 나머지 20~30%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재봉기술이나 생산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가내작업반에서 제작한 생산품의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협조와 연결망이 생성되었다.

또한 농촌의 텃밭이나 뚝배기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교환되거나 농시장 가격에 따라 판매된다. 개인 경작지를 활용한 식량 확보와 시장 거래는 북한 여성의 생활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 시장을 통한 이윤증대 원리를 터득한 북한 여성은 생산물을 국가 상업망에 내놓지 않고 직접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⁵

북한 여성의 장사유형

북한 여성의 장사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장사유형은 보따리형이다.

- 가정집에서 떡이나 빵, 국수를 만들어 파는 (불법적) 가게형
- 당국의 허가를 받고 텃밭에서 경작한 농산물과 간단한 먹거리를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합법적 장마당형
- 접경지역에서 중국 조선족에게 물건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불법적 되거리형
- 생활필수품을 싸들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형(메뚜기형)
- 금·은·동 등 지하자원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지하자원형

출처 배영애 (2010).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10(2): 107-108쪽

⁵ 배영애 (2010).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10(2).

한편 북한 사회에서 노인이나 병약자를 돌보는 일과 같은 복지 기능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구성원, 특히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실직한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여러 무보수노동에 무조건 동원되어 다중적인 노동 부담을 짊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난 이후, 제도적으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정책이 약화되고 가정에서도 가사와 양육을 여성이 거의 혼자 떠맡음으로써 북한 여성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나. 북한 여성의 인권실태

북한에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생계유지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성의 상품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 사이에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유지를 위한 성매매가 성행하였으며 조직적으로 사업화된 성매매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생계유지형 성매매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과 일신의 안락을 위해 성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장마당에서 부유한 장사꾼을 대상으로 성

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대개 역전의 대기숙박소에서 이루어진다. 성매매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1998년까지는 총살형에 처해졌으나 대체로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3~6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주부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수용기간을 단축하며, 신분이 확실한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가정을 버리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최장기간 수용된다고 한다.⁶ 결국 경제난으로 성매매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도 심각하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 삼지 않으며, 여맹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인민반회의나 여맹회의에서 가해자인 남성을 비난하고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한다. 북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해지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가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⁷

북한의 가정폭력 사례

북한에는 남자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북한은 다 석탄 때니까 나무패고, 못 박는 일도 다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하는 일이 없어요. (...) 여자들이 다 해요. 못하면 남자들이 왜 너는 못 하는가, (...) 자기한테 주는 게 부족하면 자꾸 여자들을 때려요. 술만 먹어도 여자들을 때리지 (...) 맞아도 어디가 하소연 할 데 없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 여자 바람 쏘으니까 남편이 때렸겠지, 이 정도지, 남자가 여자에 대해 성폭행한다, 아니면 남자가 아내에 대해 너무 폭력이 나쁘다, 이런 걸 몰라요. 응당한 걸로,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응당 맞고.

그런 거 아직도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이 많으니까요. 그저 지금 그 때 당시 사상은 뭐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데는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자를 기본 택해서 가정을 묶거든요. 여자는 죽도록 벌어서 남편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은 100% 중에 아마 20~30% 밖에 안 될 거예요. 여자들은 나가서 직장 일을 하고 들어와도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기본 주자로 하고 어떤 남자들이 많은가 하면, 그깟 여자들 몸 팔아서라도 나 맥여 살려라 그런 남자들이 절반이거든요. 막 벌어들이지 못하면 막 때리고 그런 거 직접 봤어요. (...) 그렇게 막 때리고, 자기는 벌지 못해 있어도 막 아내를 대리고, 나가버리고 기본이 그래요.

자료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107-109쪽에서 재인용.

6 임순희 (2004).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7 임순희(2004). 앞의 책.

이와 관련하여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폭력의 피해여성들이 즉각적인 구제와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를 기소, 처벌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⁸

다른 한편,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태이다.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와 소개인을 통한 유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조선족 중간 매개자와 북한인 중간 매개자 간의 거래에 의해 북한 여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국으로 팔려간다. 북한 내에서는 주로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나타난다. 조직적인 인신매매단에 의한 여성 밀거래가

⁸ 박영호 외(2010).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321쪽에서 재인용.

성행하며, 기혼여성을 강제로 납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또한 북한의 식량난 과정에서 부모가 딸을 팔아넘기거나 여성 본인이 원하여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북한 가정에서 먹을 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딸과 부인을 인신매매자에게 파는 것이 가장 흔히 발견된다는 것이다.¹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부모가 딸을 매매하려고 할 때 당사자인 딸은 대체로 순응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사람에게 조선돈 10,000원을 받고 판 거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거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 장백에 왔다. 우리는 중국에 살리왔는데 아무 곳이나 시집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등의 증언에서 나타나듯이,¹¹ 이들은 식량 사정의 절박함과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며 자신이 매매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으며, 일부 여

9 임순희(2004). 앞의 책.

10 나초스(Andrew S. Natsios)(2003). 『북한의 기아 : 기아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황재욱 옮김. 다함미디어

11 나초스(2003). 앞의 책. 61-67쪽.

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스스로 매매혼을 하기도 한다.¹²

다. 건강악화 및 출산기피 현상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해지고 있다. 2002년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받은 조사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머니의 약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를 간호하는 북한 여성

¹² 임순희(2004). 앞의 책.

3분의 1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영양실조는 어린이의 영양실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¹³ 북한 여성들은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력에 부담이 될 만큼 과도한 노동을 하였고, 가족 부양의 책임증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물질 조건의 변화가 여성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식량난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였던 반면,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장이 축소되면서 양육 부담이 증가하여,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여아 낙태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에, 남아선호는 다산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는 남아선호사상의 쇠퇴와 직결되는데,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13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2003).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북한 산모와 아동의 영양상태 (2002)

분류	영양상태	비율(%)
산모	저체중 (45kg 미만)	16.7
	영양실조	32.0
	빈혈	33.6
	산후 비타민 A 섭취	33.1
아동	저체중아	6.7
	발육부진	39.2
	표준체중이하	20.2
	쇠약	8.1
	6개월 미만 영아의 모유수유	69.6
	생후 1주 이상 아동의 BCG 예방접종	88.3
	생후 5개월 이상 아동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98.5
	생후 5개월 이상 아동의 DPT 예방접종	68.0
	생후 10개월 이상 아동의 홍역 예방접종	95.2
	2살 이하 아동의 비타민 A 섭취	98.6
	2살 이하 아동의 설사 발생	19.1
	설사 증세를 보이는 아동 중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	86.7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 2003,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Table 13-17, 21, 23-30'의 내용을 재정리.

현재 북한의 출산기피 현상은 매우 극심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의료보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그 결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은 여성의 상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아의 생명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가치관 때문에, 출산보다는 낙태를 통해 살아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북한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량난 이후 결핵과 자궁암, 유방암 등의 부인과 질환을 가진 북한 여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매춘으로 성병을 앓는 여성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중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부인과 질환 치료를 위한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중국 약이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약을 복용한다. 한편, 적절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들이 생리를 처리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식량이 부족하고 산원시설이 열

악하여 산후병에 시달리는 산모도 많다.¹⁴

이처럼 식량난으로 야기된 북한 여성의 건강 악화는 북한 여성의 부족한 인식에 기인하기도 한다. 북한 여성들은 부인과 질환의 병명이나 발병 원인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역시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4 박영호 외(2010). 앞의 책, 323쪽.

건강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의식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솔직히 부부가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남같이 기르지 못할 바에는 자식을 낳아서 뭘 하겠나라는 생각에 자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으로 생긴 자식도 많이 없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달거리를 할 때, 엄마한테 교육받은 것은 없고 중학교 실습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준다. 달거리가 시작되면 이제 여자로서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위생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만 알려준다. 이 달거리가 다른 한 인간을 잉태하기 위한 시점이라는 건 안 알려준다. 그건 말하기가 무었해 한다. 선생님들도 뻔히 아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 동무들이 달거리하기 때문에 남자들과 주의하십시오”라고는 하는데, 왜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까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열여섯, 그때쯤에 달거리에 대한 것이 책에 나온다. 아기가 잘서는 기간, 잘 안서는 기간, 임신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책을 다 읽어보시오”라고만 한다. 우리는 그걸 다 읽어 보고 자체로 안다.

약이라는 건 별로 써 못봤어요. 천하게 살아나구 또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세게 아파해두 생각뿐이지. 우리 어머니랑 정말 그렇게 아프면서두 참드라고요.

출처 이우영 외(2008), 『북한주민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4쪽; 좋은벗들 엮음(2000),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50-51쪽; 김태현, 노치영(2003),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하우, 70쪽.

02. 삶과 의식의 변화

가. 주체성과 자존감의 발달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은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전의 가부장제에서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복종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북한 여성들은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의 삶을 지향하도록 국가에서 교육 받았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인생의 주체로서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성하였고, 맹목적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의식과 자존감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의 책임이 커지면서 여성의 자의식 성장은 이혼, 출산과 육아 기피, 독신 선호 등의 현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과도한 노동을 피해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혼을 한

다는 것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기간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여성들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조선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노래 소리다. 원래 결혼을 해도 2-3년간은 결혼 등록 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므로 따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지금 조선에서는 남녀 간에 같이 살면서도 몇 년 간은 실험한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서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북한 여성들은 생활고를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에는 불안정한 사실혼의 증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극단적으로 고의로 신생아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부양의 책임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에게 각자 집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장사하여 내가 벌어 내가 살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독신여성은 매춘여성으로 간주하였던 왜곡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 물질주의적 경제관념과 개인주의의 확산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 여성의 경제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식임금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중심의 공식적 영역보다 개인 중심의 비공식적 영역이 크게 자리를 잡았고 배급제가 붕괴됨에 따라 시장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생존을 위해 장사나 여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이전까지 자본주의를 해악적 요소로 간주하였던 북한의 이념 교육과 달리, 장사를 통해 북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체득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으로 북한 여성들은 기존의 북한 사회를 비교할 만한 대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전에는 순응하고 살았지 극복하려는 것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풍이 그랬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 깨기 시작했다. 중국 쪽으로 물품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 쪽으로 넘나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중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¹⁵ 이처럼 외부세계에서 유입된 정보로, 지금 까지의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점차 경제력이 부각되고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사고와 돈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물질주의적 풍조가 확산되었다. 집단보다는 자신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나타난 빈부격차에 기인하기도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게 되었고 돈 없는 사람은 남의 집 머슴으로밖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 밭천을 작게 장사하던 것이 갑자기 대수를 올려놓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 그럼 굶어죽기보단 남의 집에 들어가 샅일하여 목숨은 유지한다”는 것이다.¹⁶

빈부격차의 심화에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최근 나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전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15 이미경(2006). 앞의 책. 47-48쪽.

16 이미경(2006). 앞의 책. 48쪽.

그 결과 여성들이 외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옷차림과 화장으로 자신을 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옷차림이나 꾸밈새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류 계층의 여성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경제난 이후 사회적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옷차림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북한 여성들이 돈을 벌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평양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고르는 북한 여성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의 동기가 생계유지에서 이윤추구와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 소설에서 나타난 북한 여성의 외모에 관한 표현

“어느 직장이요? 처녀라는게 화장두 안하구 일하던대루 와?” 옥련은 만사람들앞에서 속옷까지 벗기우는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당하였다. 그 때까지 옥련은 화장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써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그는 알지 못할 반발심을 가지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몰래 머리 단장과 옷차림, 화장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며 화장을 남들보다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한교대에서 함께 불을 때는 문속아주머니의 머리단장과 화장에 대하여서는 각별히 마음을 더 썼다. 그는 잔치날 곁에서 도와주어 화장이라는 것을 크게 해보고는 40살이 되도록 얼굴에 크림이나 바르면 다인줄 아는 여자였다. 그는 목욕을 하고 나서 옥련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화장품곽을 열고 강압적이다 싶어 화장을 시켜주었을 때 자못 면구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삼크림 냄새에 머릿기름냄새와 향수내까지 이렇게 풍기니 머리가 핑 돌 지격이다. 가열공을 하는 주제에 화장을 아무리 잘한들 무슨 수용이니? 집에 가서 밤만 자고나면 또 석탄먼지에 새까맣게 되겠는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화장도 더 잘하구 옷도 제일 잘 입어야 해요. 우리를 가열공이라고 절대 깔보지 못하게.”

출처 김문창의 『열망』, 190-191쪽; 조정아(2006).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변화』. 통일연구원, 61쪽에서 재인용.

실제로 2003년 이후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장사를 매개로 한 물질주의 경향이 여성들에게 확대되면서 소설과 기관지에서 여성의 비도덕적 모습과 물질주의 경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장사를 통한 수입과 소비는 황색바람을 일으켜 사치와 향락을 가져오며,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북한 당국을 이전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북한 여성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물질주의적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성 의식 역시 점차 자유롭고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사랑과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혼전·혼외 임신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북한에는 ‘자유연애’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연애결혼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 여성들의 정조관념은 매우 강했지만,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성을 팔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순결의식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고, 성을 생계유지를 위한 도구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러한 성 의식의 변화는 자본주의

적 가치관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03. 역할과 위상의 변화

가.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 발언권 강화

경제위기와 식량난이 만연하기 전의 북한의 가정생활은 엄격한 성별분업구조로 유지되었으나, 식량배급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아내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가정 해체나 아동 유기 등의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경제난 이후 북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가정의 해체와 가족 간 유대강화, 성별분업구조의 약화와 전통적 성 역할 강화 등 상반된 현상이 중첩적으로 보여진다.

먼저 가족 간 유대감이 늘어난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간 분업과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어디를 가도 혼자면 뺏기고 강도를 만나고 하니까 혼자서는 못 다닌다”라던지 “가정에서 굶어죽지 않으려면 생활에서 협력을 잘 해야 한다. 너는 강냉이 이삭을 주어오라, 너는 썩을 뜯어오라고 가정에서도 분담이 있다. 서로 힘을 합해

야 살았다”는 북한 여성들의 진술에서,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¹⁷ 남편은 공장과 기업소가 가동되지 않아 출근만 했다가 귀가하여 집안 살림을 돌보거나 산나물을 캐러 가고, 아내는 외지에서 장사를 하며, 아이들은 식량을 구하러 밖을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한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신변보호를 위해 가족의 협력이 절실해졌다.

반면, 가정의 해체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아내가 오랜 기간 행방을 다녀 집을 비운 동안 남편과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거나, 부부 간의 마찰이 극대화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이다. 따라서 경제난 이후 공식적인 이혼뿐만 아니라 별거와 가출이 증가하여 아이들이 종종 꽃제비가 되었다.

17 이미경 (2006). 앞의 책 44쪽.

가정 해체로 거리에 나온 아동의 생활

꽃제비들은 집도 없고 친척집에 가 뵈자 눈치 받다가 뚝겨나든지, 뛰쳐나온다. 그리고 배낭에다 비닐박막이나 한 장 넣고 사처로 다니다가 비닐박막을 깔고 덮고 하면서 밤을 지낸다. 조선에서는 꽃제비와 늑은이의 대화를 엮어서 꽃제비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게 있다.

네 이름이 뭐냐? / 제비요

그 이름이 좋구나 / 그런데 꽃제비예요

너는 뭘 먹고 사느냐? / 오리를 먹고 살아요

너 괜찮게 지내는구나 / 그런데 국수오리(국수가락)를 먹고 살아요

너는 어디까지 사니? / 수도에서 삽니다.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 / 그런데 하수도에서 삽니다.

출처 좋은벗들 엮음(2000).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145-146쪽.

다른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가부장적 가정생활에서 가사분담의 변화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난다. 부부간 협업이나 남성이 가사를 돕는 일이 늘어나고 여성의 발언권이 조금씩 커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여성이 움직이면 먹고 살고, 여성이 가만있으면 굶어죽는다”는 표현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여성

이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예전만큼 남편에게 순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남자들이 나가서 벌 때는 큰소리 팡팡 치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 한 낮 전등처럼 됐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 아내에게 잘해주고 하는 일에 뒷바라지 해준다.”¹⁸ 이전과 달리 남성들도 아내가 아침에 장사하러 나갈 때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정리하여 함께 집에 오거나 때로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북한 사회 전체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주로 경제난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중하층에서 두드러진다.

18 이미경(2006). 앞의 책, 44쪽.

가족의 가사분담 및 여성의 발언권 강화

이전에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밥도 짓고 가정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나가서 자기네 역할을 못하니까, 본인들 잘못은 아니고 국가적 사정 때문이지만, 여자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 오든 이전 여자가 세대주 역할을 하니까, 남자가 밥도 해주게 되고 청소도 해주게되고 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그런 일을 하면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크게 부끄럽지 않은 일로,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더라구요.

그래도 남편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니까, 밥을 해주거나 아이들 봐주거나 그러니까 여자가 벌어도 같이 협력해서 한 거지 여자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지금은 좀 여자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어도 그래도 완전히 변화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그런 것은 있지.

출처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5-246, 241쪽에서 재인용.

기본적으로 여전히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이상 북종의 대상으로만 남편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부장이라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여성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가사분담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북한 가정에서 자녀수를 결정하거나

교육방법을 택하고 집안의 세간을 구입할 것인가 등의 비교적 중요한 문제들에 남편 의견이 절대적이고 큰 편이며, 저축이나 보험 가입 또는 생활비 관리 등에서만 여성이 영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착화

여자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가정일도 많이 하고, 나가서 일을 해도 자기를 내세워서 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걸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남편한테 재세(유세)하거나 싸우다가도 대들거나 하는 것 없어요.

조선의 일상생활에서도 가부장적인 남녀불평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전부를 가정살림과 식구들의 치다꺼리에 바치는 바로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시어머니', '일터에서는 훌륭한 여성, 가정에서는 현모양처인 아내' 등 여성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남편들은 무조건 여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만 강조하고 여자니깐 참아야만 하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 부양에서도 아들의 강력한 의무가 유지되어 있기에 여성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가정의 화목은 며느리에게 달렸다'고 하면서 가정불안의 원인은 모두 여성에게만 돌린다. 남성들은 으레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현재도 여성이 밖에 나가 식량을 구입하여 밥상을 차릴 때까지 남성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한다.

*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0-241쪽에서 재인용; 최명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자료집. 11쪽.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북한 여성에게 이상적인 여성상은 어른이나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이자 남편에 대해 내조를 잘하는 아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표면적으로는 남성의 가장 역할이 약화되고 여성의 권한과 지위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가부장적 의식 속에서 성 역할이 더욱 고정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족 구조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변화하였다.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장사를 통해 여성들은 높은 수입원을 창출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북한 대내외 정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소설이나 기관지에 반영되면서 여성의 역할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군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직업을 가진 여성과 전문직 여성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¹⁹ 또한 실제로 북한에서 여성의 군 입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당원에 대한 선

호도가 낮아지고 남성 지원자가 줄어들자, 북한 당국은 여성들의 입대를 허용하여, 여군의 비율이 15%까지 높아졌다.²⁰ 이러한 여군 비율의 증가는 경제난으로 인해 파급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여성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행진하는 북한의 여성 군인

19 임순희(2004). 앞의 책, 168쪽.

20 율미량(2006). “북한 여성의 위상과 역할”. 『북한의 사회문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한울, 499쪽.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모성을 요구한다. 1960년대 등장한 ‘대가족론’을 필두로, 1980년대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추가하면서 북한 당국은 여성에게 모성애를 발휘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의 복지체제가 무너지고, 대가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책무를 사회적 미풍양속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여성은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여성의 모성을 사회적 차원에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에 대해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¹ 먼저, 장사를 위시한 여성의 경제활동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경제적 자립능력의 향상으로 직결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감안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매춘과 같은 부정적인 상행위로 북한 여성들이 왜곡된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직업의 남녀 분류 비율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직업군이 아직 간단하고 저임금인 경공업이나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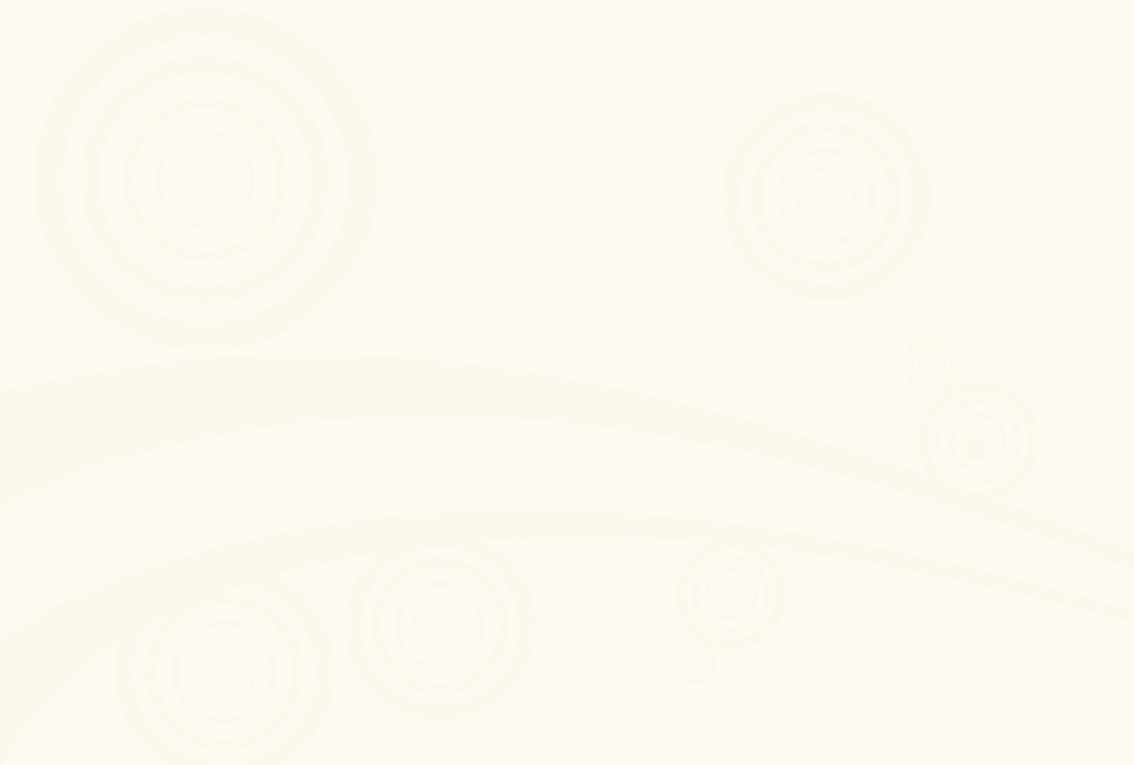
21 임순희(2004). 앞의 책. 90-91쪽.

스업에 치중하여 있다. 장사 역시 단순한 물품 거래나 농산물 교환에 불과하여 전문지식이나 일정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의 직업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주로 비공식경제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여성이 노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선택한 행위가 아니라 생계부양 등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어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06

맺음말

06

C H A P T E R

맺음말

북한의 여성정책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온 것처럼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권 수립 초기부터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현재 북한 여성들은 식량난에 직면하여 열악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남녀 불평등,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의식,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가정 질서, 과도한 노동 부담과 이에 따른 건강악화, 그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보다 높은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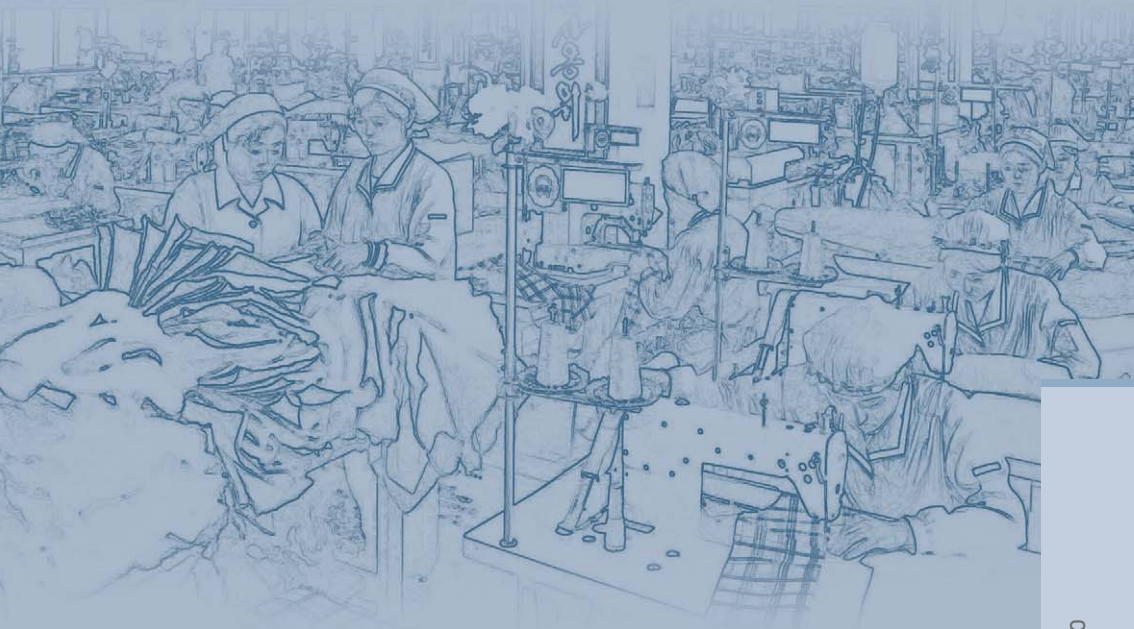
라고 할 수 있다.

식량난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북한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기근·영양실조·질병,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 상황 속에서 여성이 노인, 어린이와 함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식량난으로 북한 여성들의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과도한 노동과 건강악화,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으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은 북한 여성의 건강악화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은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력에 부담이 될 만큼의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가족부양의 책임증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에 따른 의료보급체계의 붕괴로 인해 잘못된 피임 및 낙태를 시도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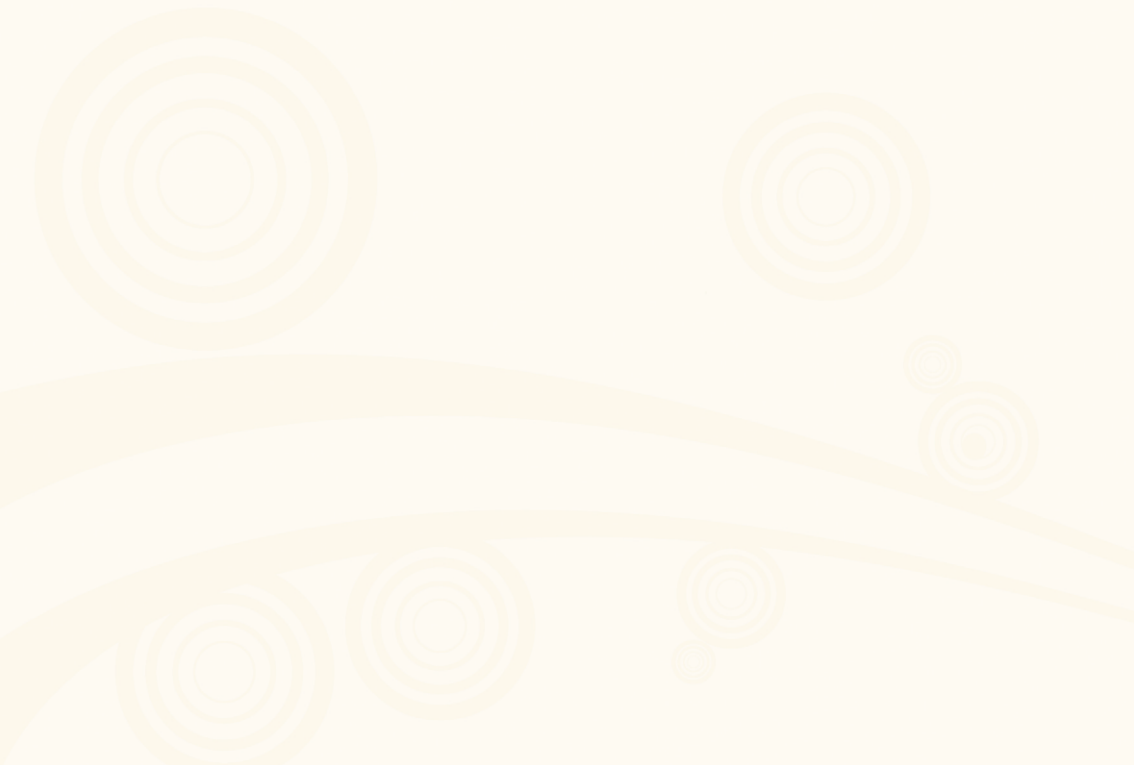
낙태를 받지 못하고 마약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낙태를 시도하거나 불법 시술소 등에서 낙태를 하기 때문에 사후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술받다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²²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여성들에게 다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들을 인격체가 아닌 출산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며 나아가 여성들의 생명만을 위협할 뿐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녀부양의 현실적 조건이 개선되고 여성의 가사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북한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과 불법낙태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여성의 경우,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안고 있다.

22 좋은 벗들(2008), 앞의 책, 105쪽.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07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구수미 외. 2005. “체제변화시기 북한도시여성의 지위변화: 중국 도시여성과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9(2).
- 권수현. 2010. “북한조선민주여성동맹의 변화와 지속”. 『사회과학연구』. 18(2).
- 김원홍, 이인숙, 권희완. 2003. 『개정: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원홍, 김정혜. 2007. 『2007년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 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 외. 2009. 『북한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제2부 교육.여성.보건분야』.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문장순**. 2009. “북한의 여성인식 변화과정”. 『남북문화예술연구』. 4: 7-38.
- 문장순**. 2010. “북한조선여성동맹의 역할변화와 그 요인”. 『평화학연구』. 11(1).
- 박영자**. 2005.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 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13(1).
- 박영호 외**. 2010.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배영애**. 2010.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10(2).
- 윤미량**. 2006. “북한 여성의 위상과 역할”.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 경인문화사.
- 이미경**. 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1).
- 이자형 외**. 2006. “북한의 보건의료와 여성건강상태에 대한 고찰”. 『간호과학』. 19(1).
- 임순희** (2004). 『식량난과 북한 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 조선중앙통신사**. 2004. 『조선중앙연감』 제57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중앙통신사**. 2005. 『조선중앙연감』. 제58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 통계청**. 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북한이해 2011』.

황나미 외. 2008.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사업 접근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 2003.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UNFPA. 2010.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From Conflict and Crisis to Renewal: Generations of Change.

UNICEF. 2011.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Adolescence. An Age of Opportunity.

<http://www.idea.int/uid/countryview.cfm?id=121#Genderquotas>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18 북한의 의료실태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21 북한의 체육실태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23 북한의 대남전략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비매품〉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2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902-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인쇄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인쇄사업단 전화 02)2167-3274-6

“북한 식량난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여성은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과도한 노동과 건강악화, 가정폭력 등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92-14